

『문화예술경영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규정

2008년 5월 30일 제정

2014년 6월 1일 개정

2016년 12월 30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개정

2023년 12월 3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문화예술경영학연구」의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투고 자격)

1. 원칙적으로 논문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는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기획 논문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3.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제3조(논문투고 절차)

1.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2. 논문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ubmission.kosacm.org/>)

제4조(논문작성)

1. 논문은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영문원고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편집체제를 따른다.
3. 작성분량은 A4용지 15매를 기준으로 한다.
4. 원고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 ① 논문제목, 저자이름, 목차,
 - ② 국문초록 및 국문주제어(5~6개),
 - ③ 본문,
 - ④ 참고문헌,
 - ⑤ 영문제목 및 영문초록과 영문주제어(5~6개 내외) 순으로 배열한다.
5.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학회가 제시하는 논문작성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필요기재사항)

1. 원고에는 국·영문초록과 국·영문 주제어(5~6개)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투고서(홈페이지 양식제공)를 붙이고, 논문제목(국/영문), 저자명(국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 및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3. 논문에 대한 감사의 글이나 연구비 출처, 학위 논문 및 연구보고서 재게재 등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옆에 *를 상첨자로 표시하고 각주번호 없이 각주로 처리한다.

제6조(논문반환 및 저작권 양도)

1. 제출된 원고는 '게재불가' 판정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3.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집필자는 저작권양도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며 이로써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논문집필자는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1. 논문투고시에는 심사료 8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학회지에 게재승인이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준 분량 초과 시 1매당 10,000원씩 추가한다.
 - ① 전임: A4 기준 15매까지 200,000원 (기존 20매, 15만원)
 - ② 비전임: A4 기준 15매까지 125,000원 (기존 20매, 7.5만원)
 - ③ 연구비수혜논문: A4 기준 15매까지 ①과 ②를 기준으로 하여 100,000원 추가 (기존 20매, 20만원)

제8조(한글논문작성법 세부규정)

○ 원고작성 방법

-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및 참고문헌, 영문초록 및 영문주제어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A4 용지 15장을 기준으로 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분량이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의논하여 조정한다.
- 2) 원고에서 제목을 제외한 모든 글의 크기는 10pt, 신명조체, 줄 간격은 160%, 여백은 한글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초기값을 기준으로 하며, 각주는 9pt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 외의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논문작성양식」을 기준으로 한다.
- 3) 원고는 제목, 저자명(소속, 지위, 이메일 주소 기입), 목차(장과 절 제목 기입),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4매 내외, 국문주제어 5~6개),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Keywords 5~6개 포함)의 순으로 배열하고 쪽번호를 기재한다.
- 4) 논문투고 시에는 저자의 정보를 위해 표지(홈페이지에서 제공된 논문투고서양식)를 작성하여 원고 맨 앞에 삽입하되, 해당양식에 따라 논문 제목(국·영문), 성명(국·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전화(직장, 자택, 이동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논문투고서는 분량상 페이지(쪽)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 5)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

서로 명기한다.

○ 본문

- 1) 본문의 체제는 1 → 1. → 1) → (1) → ①의 순서로 한다.
- 2)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와 외국어로 된 용어, 인명, 지명 등은 한글로 적고 처음 나올 때에 ()안에 함께 적고, 이후에는 한글만 적는다.

○ 본문주

- 1) 기본적으로 본문의 참고주는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되, 저자의 관점이나 입장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언급되는 경우는 저자명(출판연도) 표시 방식을 취하고, 저자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는 (저자명, 출판연도: 페이지 기입) 방식으로 처리한다.

예) 홍길동(2009)에 의하면, ...예술마케팅의 정의와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홍길동, 2009: 212-213)

- 2) 저자가 두 명인 국내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저자명 작성 시 ‘, ’를 이용하고, 외국문헌의 경우에는 ‘&’를 이용한다. 저자가 세 명 이상인 국내문헌을 본문에서 인용하는 경우, ‘외’를 이용하고, 외국문헌의 경우 'et al.'을 이용한다.

- 3) 각주로 처리하는 경우는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할 때 사용하며, 해당 쪽(면)의 맨 아래에 달며,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출처를 밝힐 경우의 기술방식은 참고문헌과 동일하되, 쪽수를 밝힌다.

○ 표, 그림 제목 및 출처 표기

- 1) 표는 표 위에 <표 1> 표 제목으로 하며, 출처 표시는 아래 8p. 130%로 기입한다.
- 2) 그림은 그림 아래에 <그림 1> 그림 제목으로 하며, 출처 표시는 아래 8p. 130%로 기입한다.

○ 참고문헌

1) 일반 사항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내어쓰기 30pt로 하여 각 참고문헌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 한글문헌, 동양문헌(일본어, 중국어),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 저자명은 가나다 순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에 따라 배열하되, 원어표기를 할 때에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예시: 레이몬드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 (2007)는

- 동일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한다.

2) 단행본

- 저자명. (출판연도). 서명(書名). 출판자의 순으로 기입하고, 서명은 < >(국문 및 동양 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예시

심상민. (2007). <컬처 비즈니스>. 서울: 위즈덤하우스.

Chong, D. (2002). *Arts Management*. New York: Routledge.

Baumol, W. J., & Bowen, W. G. (1966), *Performing Arts : The Economic Dilemma - A Study of Problems common to Theater, Opera, Music and Dance*, The Massachusetts: M.I.T. Press.

- 번역서의 경우, 저자의 영문명을 먼저 기입하고, 번역자,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연도순으로 한다.

*예시

Pierre Bourdieu. (1979). *La Distinction-critique sociale du jugement*, 최종철 역. (2006),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3) 개별 논문 및 작품

- 국문 개별 논문은 “ ”로, 출처 저서는 < >로 표시하며, 쪽수를 밝힌다.
- 외국어 문헌의 개별 논문은 부호 없이 기술하고 출처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하며, 쪽수를 밝힌다.

*예시

임상오. (1997). “문화경제학의 사상적 원류: John Ruskin의 사상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5(1), 33-57.

Belfiore, E., & Bennett, O. (2010). Beyond "Toolkit Approach": Art Impact Evaluation Research and the Realities of Cultural Policy-Making.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14(2), 121-142.

4) 보고서 및 학위 논문

- 단행본과 같은 순으로 표시하되, 보고서 및 학위논문 제목을 < >로 표시한다.

5) 신문 및 잡지 기사

- 기사 자체를 ‘ ’로 표시한다. 예) 신문이름, ‘기사 제목’, 연도 및 날짜, 면(혹은 쪽수)

6) 인터넷 자료

-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 기관(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명만 쓰지 않고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한다.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둔다.

*예시

Author, I. (date). Title of article. Name of Periodical [On-line], 호수, Available: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 주소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